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이름 숭실대학교

숭실, 그것은 최초의 이름이다

110년 전 개화기의 어둠 속에서 이 땅의 교육 근대화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으로 걸음을 내디딘 숭실은, 선각자의 사명이자 지성의 기치를 높인 자부심의 이름으로 성장해 왔다. 1897년 10월, 숭실은 평양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베어드 목사에 의해 '진리와 봉사'를 교육적 소명으로 삼아 창설됐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 대학의 모태이며 이후 대한제국 정부의 인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평양 숭실대학은 일제시대에 3·1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학술·문학·음악·체육 등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기르는 요람이었다. 그래서 일본총독부는 숭실대학을 '불온사상'의 근거지라 했고, 1938년에는 한국인의 얼을 빼고 한국 기독교를 억압하려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강요했다. 숭실의 곧은 정신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사를 분명히 하여 결국은 자진폐교를 선택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숭실대학교는 민족의 정기와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한 유일한 기독교 민족대학이다.

또한 숭실은 을사조약반대운동, 조선국민회사건, 3·1운동, 광주학생운동, 신사참배거부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김창준, 박희도 등 숭실대생이 두 명이나 포함되었을 정도로 숭실은 항일 민족운동의 본산이었다. 질곡의 현대사 속에서도 대학 본연의 가치를 높이고, 지성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의 행보는 곧 민족사학의 자존심이었다.

과감한 시도는 송실의 전통이다



송실은 교육의 다각화와 전문화에 서도 선구자적인 시도를 마다하지 않았다. 최초로 현대음악을 도입하고 교육하였으며, 안익태, 현제명, 김동진 등 음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음악인을 양성해냈다. 우리나라 IT 산업은 송실이 기초를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컴퓨터라는 말이 보급되기도 전인 1960년대 후반, 송실은 한국 대학 최초로 IBM 1130 전자계산기를 도입하고 부설

전자계산연구소를 설치하여, 이공계 교육의 선두주자로서 그 명성을 쌓게 된다. 아울러 인문학부의 양성에도 매진, 1972년에는 문리과 대학과 법경대학이 대학교육 개선을 위한 실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1973년에는 공과대학, 1975년에는 대학원이 교육개혁을 위한 실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한 발 앞서 사회 변화를 예감하고 이에 따른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진보된 학교, 이것이 송실대학교의 남다른 저력이다.

송실의 역사는 한국 IT교육의 역사이다

IT강국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IT교육의 산실 송실대학교가 있었다. 국내 최초로 전자계산학과,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통신학과를 설치한 대학, 한국 최고의 정보화 대학인 송실대학교는 이제 세계 최고의 IT 전문 교육기관으로 도약한다.

송실대학교 컴퓨터공학의 역사는 고스란히 국내 IT교육의 역사이다. 1960년대 컴퓨터를 도입하고, 최초의 컴퓨터교육을 시작했던 송실대학교는 1987년 정보과학대학원을 신설했으며, 1996년에 국내 최초의 정보과학대학을 세워 IT인재 양성을 주도해 왔다. 2006년에는 기존의 정보과학대학과 공대 소속이었던 정보통신전자공학부를 통합하여 국내 최초로 IT대학을 신설, 정보화 교육의 메카로 다시 한번 도약했다. 현재 IT대학에는 컴퓨터학부, 미디어학부, 정보통신전자공학부의 3개 학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운영으로 우수한 IT 전문가를 배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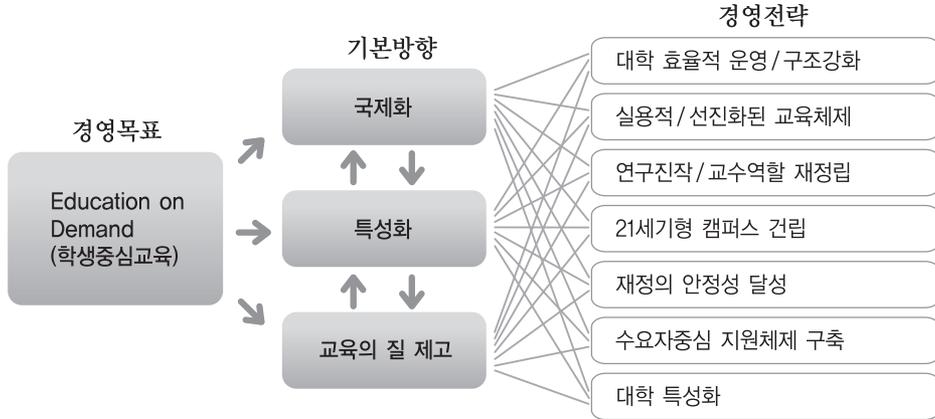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숭실대학교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각 분야 최고의 교수진과 선진적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IT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는 최적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정보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2006년 대교협 학문분야평가에서 IT대학 컴퓨터학과와 정보통신전자공학부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컴퓨터학부는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T전공 역량 강화(NEXT) 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 12월까지 4년

간 총 12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컴퓨터학부는 소프트웨어개발(SD) 트랙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연간 7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2012년까지 7년간 진행되는 2단계 BK21 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모델이 될 한국 IBM과의 공동교육센터 개설, 사업기간(2006. 9. 1~2009. 8) 3년 동안 총 19억 8,6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는 중점연구소(정보미디어기술硏)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는 등 최고 IT 명문대학의 자긍심을 이어가고 있다.

변화와 혁신은 당연한 가치다

숭실대학교는 학문의 목적이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산학협동의 근간이 되는 이공계 학과에의 지원과 양성에 여타 대학보다 앞장서왔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학생을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2010 마스터플랜 등의 세부적인 변화와 혁신은 개교 110주년을 맞아 우수 인재들의 대거 지원 등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숭실을 향한 기대의 반증으로 이들이 가져올 숭실의 잠재력은 대학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발판으로 21세기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 올릴 교육적 자존심의 상징으로 숭실이 지금, 새롭게 거듭난다.



⇒ Soongsil 2010 프로젝트

Global Brain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성과 전문성, 그리고 교양을 겸비한 지식인을 말한다. 송실대학교는 'Global Brain의 양성'이라는 장기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화, 특성화, 교육의 질 제고라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한 선진화된 교육방법과 첨단 교육시설을 도입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 국제화(The Globalization)

송실대학교는 대규모의 다변화된 국제 학생교류를 지향한다. 해외 우수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송실인의 국제교류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21세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의 특화된 교류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제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차별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 특성화(The Characteristic)

송실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학생 중심의 실용적이고 선진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을 통해 다변화된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성화된 IT, BT, 동북아, 사회교육, 사회봉사, 중소기업 등과 관련하여 학문과 연관된 산업 분야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된 실용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비전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 교육의 질 제고(The Education of the Height Quality)

송실대학교는 최상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은 물론 교육인증제도, 교수학습센터 등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최적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통해 캠퍼스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최적화된 교육공간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미래 첨단기술과 자연의 감성이 공존하는 디지로그 교육환경



송실대학교는 고유의 정체성을 갖는 교육이념을 강화하고 세계 속의 송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으로 캠퍼스 마스터플랜(SSUMP : Soongsil University Campus Master plan)을 세우고, 열린 캠퍼스, 인간 중심의 캠퍼스, 친환경적인 캠퍼스, 미래지향적인 캠퍼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④ 캠퍼스 블록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도심형 캠퍼스인 송실대학교는 좁은 교지와 밀집된 건물군의 이동 편의성과 건물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 블록을 단일건물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퍼스 블록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문 영역별 집적', '기능별 집적', '외부연계 시설의 집적'이 이루어져, 학문의 연계성을 향상하고 기능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외부와의 연결성을 향상하여 산학협력, 학교기업, 지역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④ 학생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송실대학교는 기존의 법대 건물에 민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의 문화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상부는 교수연구실과 강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하부에는 다양한 상업시설과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복지시설의 확충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또 생활문화관 리모델링을 통한 기능 개선 및 학생복지시설 확충, 인문관과 연구동의 리모델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IT대학 신축, R&D센터 신축을 통한 IT 분야의 특성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형남공학관 신축을 비롯, 걷고 싶은 거리, 분수광장 등을 이미 조성했으며,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음악공연예술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벤처중소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음악산업 및 IT글로벌연구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는 광명 제2캠퍼스



[2010년 완공 예정인 송실대 기숙사 조감도]

를 추진하고 있다. 또 종합강의동 신축, 민자유치 기숙사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송실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다. 송실대학교는 2005년 제1회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시상식에서 '환경개선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U-캠퍼스

IT특성화 대학 송실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캠퍼스 구현을 위해 'U-캠퍼스'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U-캠퍼스는 현재 2단계 사업으로 무선포털 제공, 전자결제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며 2008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경영자전략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화 시스템의 수익 사업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송실대학교는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서비스 개선은 물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가히 혁명적인 캠퍼스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송실대학교는 2010년까지 '캠퍼스 블록화' 작업 등 다양한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 걸맞는 캠퍼스 인프라를 갖추고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송실은 평생교육을 지향하며 지역과 함께 나아간다



[테마파크와 대학 간의 신개념 프로그램. 서울랜드에 설치된 송실대 '수학창의력 체험관']

송실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송실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봉사'에 입각하여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사회교육, 평생학습기회와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얼마 전 최신식 건물로 리모델링된 안익태기념관을 중심으로 교내·외에서 콘서트바토리, 경영학사, 사회복지학, 교양학점 등 학점은행제 과정과 NIE논술지도자, 유통관리사 2급 등의 자격증 과정, 어린이영어캠프, 플라톤독서논술캠프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전문성과 기독교적 사랑으로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자아개발과 목표실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견고 싶은 거리 조성

2005년 4월 송실대 담장 철거작업과 견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를 통해 송실대 주변에는 산책로는 물론, 길 중간에 시냇물, 미니폭포와 전시공간까지 꾸며졌다. 또 송실대는 교내에 '차량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있으며 원형광장, 분수대 공사 등 지속적으로 지역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진 캠퍼스 환경은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지역의 공원과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승실에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교육 노하우가 있다

승실대학교는 '영어 의사소통에 능한 미래의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우수한 교수진이 좋은 시설과 교재를 이용하여 신입생 영어교육부터 교양 선택까지 체계적인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영상도서관, 영상교육매체 제작실을 운영하며, 해외연수와 유학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연수 및 유학상담을 실시하고, 해외 자매교 교환학생 및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승실대학교는 2006년 제2회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서 국제교류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국제화 프로그램

승실대학교는 14개국 54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연계해 다양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자매대학에서의 교육 이수 학점을 본교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외국대학원과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 승실의 캠퍼스를 세계로 확장시킨 적극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Exchange Student)

승실대학교와 자매결연이 체결된 해외 대학들과 학생들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환학생은 한 학기 동안 해외 대학의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Homestay)에서 생활하며 저렴한 경비로 외국에서의 대학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외국학생이 일정기간 승실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면 승실캠퍼스에 있는 학생기숙사,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등을 통해 승실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 영어연수 프로그램(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

장학생을 선정하여 방학 중 약 6주간 승실대학교의 해외 자매대학에서 영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2년부터 매년 여름·겨울방학에 캐나다 빅토리아대학(University of Victoria)에서 각각 약 30명씩, 호주 HHH college에서 20명씩 영어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어습득뿐만 아니라 외국문화체험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일본어연수 프로그램(Japanese Language Training Program)**

자매대학인 일본 메이지학원대학(明治學院大學 Meiji Gakuin University) 요코하마 캠퍼스에
서 1995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중 4주 동안 실시하는 일본어연수 프로그램으로, 매년 20명의 학생
을 선정하여 파견하고 있다.

⇒ **국제학생교류세미나(International Student Seminar)**

자매대학인 일본의 오사카경제법과대학(大阪
經濟法科大學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과 함께 1995년부터 국
제학생교류세미나를 열고 있다. 한·일 양국 학
생들의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양교
가 번갈아 주최하며, 1주일 내지 10일간의 합숙
생활을 통해 양국 대학생들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외교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 **중국어연수 프로그램(Chinese Language Training Program)**

자매대학인 중국 천진사범대학에서 여름방학 중 5주간 어학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일정금액의 연수장학금이 지원되며 연수기간 동안 중국 주요 문화유적지 답사 등의 기
회가 주어진다.

⇒ **아쿠카(ACUCA) 프로그램**

송실대학교는 아시아의 기독교대학 연합단체인 '아쿠카' 회원교로서, 매년 열리는 국제행사에
대표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약 1주일간 진행되는 국제학생캠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
국, 대만,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대표학생들이 참가한다.

[맞춤형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성장시킨다]

송실대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최대
한 존중하며,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노
력한다. 다양한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열
린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전문 자격증 제도 등
학생 우선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미래로 열린 가능성 - 입학 시 선택한 제1전
공 외에 타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위하
여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행함으로써 '복
수전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전공



외에 관심 있는 학과(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부전공을 인정하는 '부전공제도', 재학 중 소질과 적성의 재발견으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새로운 학문적 욕구에 충족을 위하여 전공 분야를 변경할 수 있는 '전과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 다양한 전문 자격증제도 - 송실대학교는 대학 재학 중 관련학부 및 과목의 일정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진로를 제공하고 있다.
- 송실 장학금 - 송실대학교는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교내·외 60여 종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송실 인재 양성기금'을 마련하여, 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7명에게 지원하는 등 우수한 인재가 마음 놓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 이호계 총장 임기 중 무보수 선언 - 전 농림부장관 출신으로 2005년 2월 신입총장에 임명된 송실대 이호계 총장은 임기간 '무보수 총장'을 선언하며 4년 간 받게 될 약 5억 원의 연봉을 전액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봉사활동, 기독교정신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땀방울이 빛난다

송실대학교는 진리와 봉사의 건학 이념을 실천하고자 본교 사회봉사단 '다름사랑'을 주축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송실 자원봉사 공모전을 통해 '다름사랑'은 물론 개별 동아리와 학과 및 제 단체별로 복지시설과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 각종 교외 봉사공모전 수상은 물론,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다양한 기관과의 사회봉사활동 전개

송실대학교는 SK행복나눔재단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영역 확대와 인력 및 시설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협약을 한국소아암재단과 체결했다.

또 새문안교회, 로템노인전문병원 등과 함께 송실대 학생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봉사교과목의 이수를 추진하고 있다. 「섬김의 리더십」과 「사회봉사」 수강생은 노인전문 병원인 '로템병원'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두 과목은 모두 교양필수 과목이므로, 모든 재학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학기 32시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 국내 봉사활동

송실대학교는 인근 지역의 사회봉사기관 및 시설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함으로써 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이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영유아보호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봉사활동 희망자들을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해외 봉사활동

진리와 봉사의 교훈 아래 체험적 봉사 중심의 지성인을 길러온 송실대학교는 국제경쟁력과 자아개발 및 봉사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매 학기 방학 중에 해외봉사단을 구성하여 1997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네팔,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사회봉사교과목

송실대학교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학문적 지식은 물론 도덕적 인격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진리와 봉사의 교육이념을 구현한다.

내일을 바꾸는 힘, 세계와 경쟁하는 송실의 핵심역량

⇒ INFRA POWER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창조적인 인재가 배출된다. 송실대학교는 세계 속의 인재양성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을 세우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세계 수준의 캠퍼스와 특성화된 IT경쟁력을 살려 세계 제일의 유비쿼터스 캠퍼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다.

⇒ SYSTEM POWER

110여 년의 전통 속에 다듬어진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이 앞선 인재를 키워낸다. 송실대학교는 11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남다른 교육의 노하우를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열린 교육문화를 지향한다. 학생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를 이끄는 빛이 되어 나아간다.

⇒ HUMAN POWER

최고의 교수진, 글로벌리더로 활약하는 동문과 재학생이 송실인의 능력과 열정을 세계로 펼쳐나간다. 행동하는 지성의 전당 송실은 세계 속에서 당당히 활약할 인재를 키우는 준비된 인재 양성소이다.

['진리와 봉사' 를 세계로!]

송실이 만들어가는 참된 지성의 모습이다. 110년의 소중한 전통을 지켜나가고 앞으로의 더 큰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송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 '송실'이란 두 글자는 보증수표이고 패스포트이며 바로 신용카드이다. 그렇게 믿음이 가는 인재를 송실대학교는 기르며 배출하고 있다.

송실대학교는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은 물론,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평생 교육을 지향한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항상 가득한 곳, 그곳이 송실이다.

송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과 창조의 이름이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이름, 바로 송실이다.

